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결	서무	간사	위원장
재			

등록금심의위원회 3차 회의		일시	2018.12.26.(수) 17:00
		장소	본부관 311호
참석위원	최준수(위원장), 김태호, 이호선, 김인준, 오지웅, 정성훈 (이상 6명)		
업무지원	간사 : 조 준 / 서무 : 안정민		
불참위원	손진욱		
의제	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 관련 심의		

◎ 회의내용

1. 개회선언

■ 위원장

- 재적 위원 7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-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19학년도 대학원 및 학부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 책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.

2.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 관련 심의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 제시한 대학원 수업료 인상률 1.75%가 대학원 일괄 인상률인지 아니면 평균적인 인상률인지 질의함.
- 아울러 교육부에서 고시한 평균등록금 산정방식에 따라 대학원 평균 등록금을 산정할 경우,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상률보다 높아지는지 아니면 낮아지는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대학원 수업료 인상률은 각 대학원에 일괄 적용됨.
- 교육부 산정 방식에 따른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인상률보다 높을 수도, 낮을 수도 있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상률에 따라 평균등록금을 산정했을 때, 법정 상한인 2.25%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대학원 계열별 정원에 따라 평균등록금 자연인상분 또는 자연인하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것까지 계산하여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2.25% 이하로 산출되도록 책정하는 것임.
- 정부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 대학의 등록금을 동결시켰음. 당시 대학 간 등록금 격차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, 등록금 수준이 높지 않은 우리 대학의 경우 타 대학과의 수입 격차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18년 물가상승률 1.6%가 대학의 모든 예산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.
-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식료품이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며, 건설, 사무용품 등 대학 관련 물가의 상승률은 전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았음.
- 학교 측에서 제시한 1.75%는 2018년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수치이므로 과도한 인상이라고 판단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교육부에서 제시한 인상률 법정 상한이 2.25%인데, 학생 측에서 제시한 인상률 1.3%는 법정 상한과 차이가 너무 큼.
- 대학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 대표자로서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고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람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 제시한 추가 비용 발생 예상 항목에 일반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음. 2018학년도 추경예산 자료를 보면 일반용역비에서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,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우리 대학의 종합정보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, 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시스템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며, 2019학년도 예산에도 관련 항목이 편성될 예정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학교 측에서 제시한 추가 비용 발생 예상액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예산으로 총당할 수 있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까지 고려한 추가 비용을 등록금 인상요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추가비용 발생 전체 예상액을 등록금 수입과 비등록금 수입 비율로 배분하여 등록금 인상 요인액을 추산하였음.
- 등록금 인상을 산정 시 고려한 것은 등록금 수입에서 총당해야하는 비용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2018학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비등록금회계전출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건물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및 신축 비용 등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일부를 건축기금에 적립하는 내용임.

■ 학생 측 대표위원

- 매년 우리 대학의 예산 규모보다 결산 규모가 작은 것으로 확인됨. 비등록금회계 전출금 예산을 일부 줄여서 전체 예산 규모를 축소하면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질의함.

■ 학교 측 대표위원

-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큰 금액이 소요되므로, 매년 법적 상한만큼 적립하여 향후에 후배들이 지게 될 부담을 덜어주는 것임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 재정여건상 법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적립하고 있음.

■ 외부 전문가 위원

- 법령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음.

3. 2019학년도 등록금 중 일부 심의결과

■ 위원장

- 지금까지 총 3차에 걸쳐 2019학년도 학부 외국인 학생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 관련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합의하였음.
 - 2019학년도 학부 입학금은 2017학년도 대비 40% 인하함.
 - 2019학년도 학부 외국인 학생의 수업료는 동결함.
 - 2019학년도 대학원 입학금은 동결하고 수업료는 1.45% 인상함.
 - 2019학년도 신설 전공인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골프융합과학전공의 수업료는 기존 체육학과 전공의 2019학년도 수업료에 1,100,000원을 가산하여 책정함.
 - 2019학년도에 신설되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의 수업료는 2019학년도 경영대학원 빅데이터경영 전공의 수업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함.

4. 폐회선언

- 차기 회의는 2019년 1월 8일(화) 이후에 개최하기로 정하고 폐회를 선언함. 끝.

2018. 12. 26.

국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

위원장

최준수



위원

김인준



위원

이호선



위원

오지



위원

손진욱

위원

정성훈



위원

김태호

